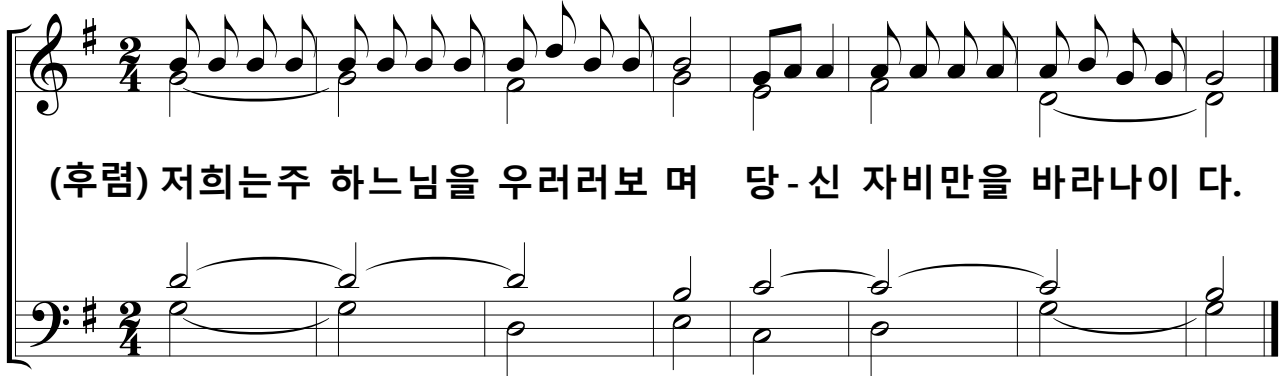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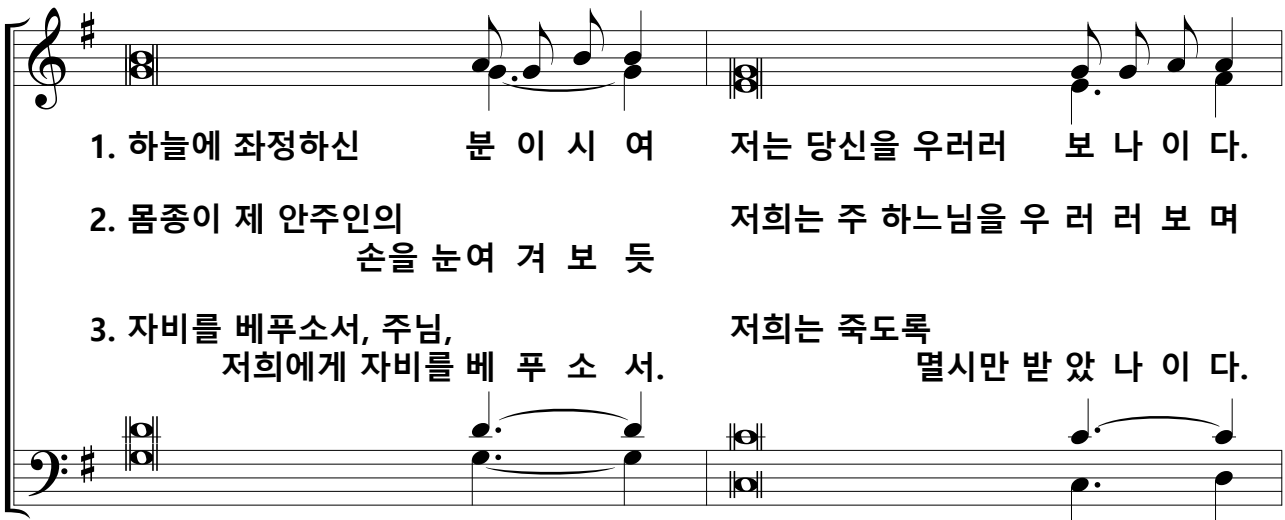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14 주일 화답송 [나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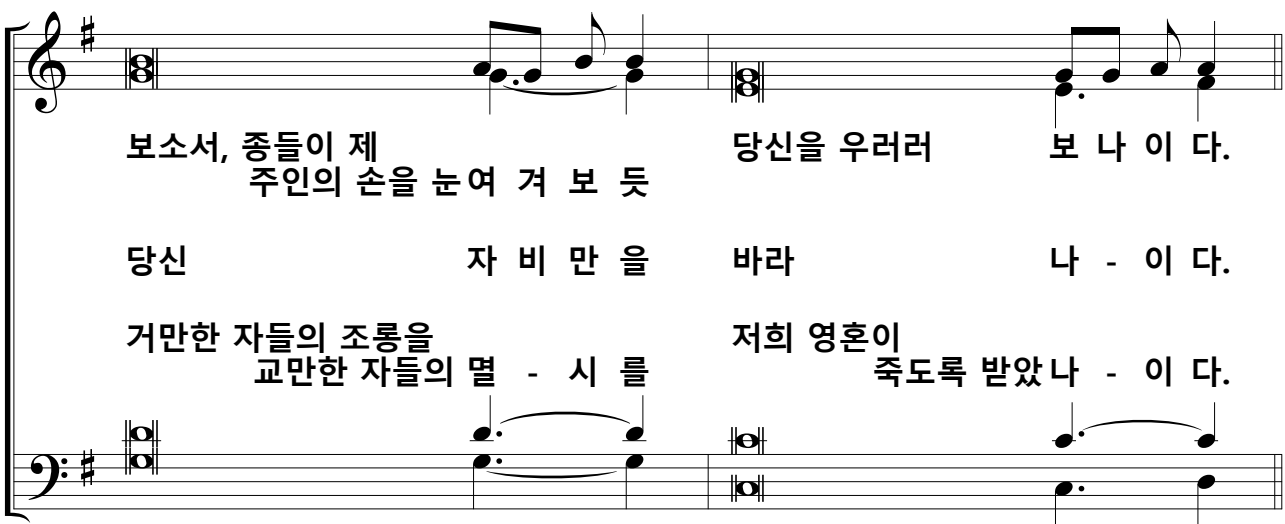
시편123(122), 1-2ㄱ. 2ㄴㄷㄹ. 3-4



(후렴)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 보며 당-신 자비만을 바라나 이 다.



1. 하늘에 좌정하신 분 이 시 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 나 이 다.
 2.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 겨 보 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 러 러 보 며
 3. 자비를 베푸소서, 주님, 저희는 죽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 소 서. 멸시만 받 았 나 이 다.



보소서, 종들이 제 당신을 우러러 보 나 이 다.
 주인의 손을 눈여 겨 보 듯
 당신 자 비 만 을 바라 나 - 이 다.
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저희 영혼이
 교만한 자들의 멸 - 시 를 죽도록 받았 나 - 이 다.

연중 제 14 주일 알렐루야 [나해]

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

주 - 님 - 의 영이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
내 위에 내 리 셧 다.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 - 셧 - 다.